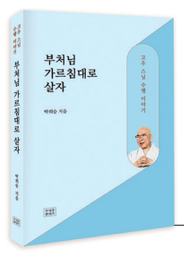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4~8/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성철스님의 돈황본육조단경	성철 스님	장경각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3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8	연꽃법화경(개정판)	원순 옮김	법공양
4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9	능엄경대의 풀이:우주와 인생의 진리근원을 밝힌(증보판)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5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초기불교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삶 그대로가 수행…고우 스님의 아름다운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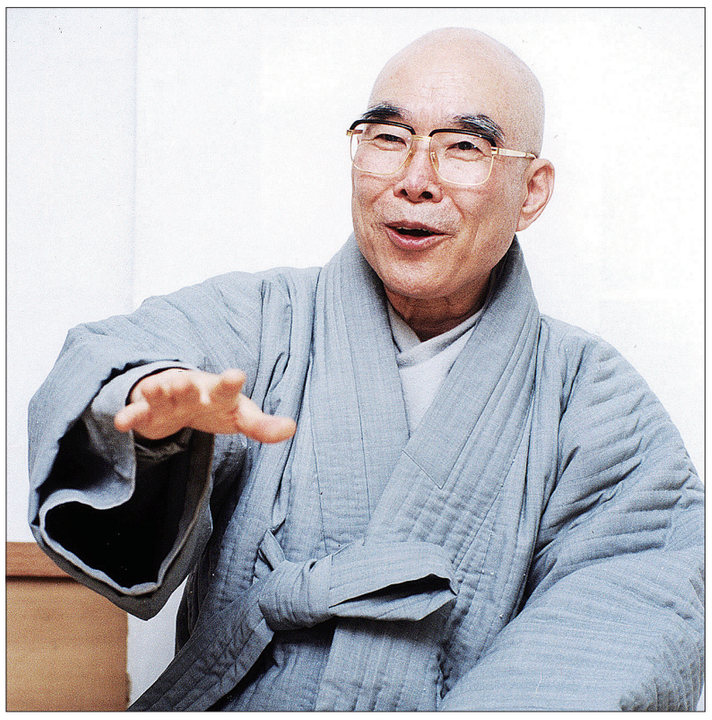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박희승 지음
조계종 출판사
1만 8000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현대 한국불교에서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지식 고우 스님(古愚, 1937~2021)〈사진〉의 열반 3주기[(2024. 8. 25(음 7.22)]를 앞두고 스님의 수행 일대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고우 스님께서 1961년 불치병을 만나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절에 갔다가 불교를 만나 간화선에 발심하여 평생 정진하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법랍 60세로 2021년 열반할 때까지의 수행 일대기를 담고 있다.

고우 스님은 당대의 대선지식 향곡 스님, 서옹 스님, 성철 스님, 서암 스님을 가까이서 모셨다. 1969년 수좌 도반들과 선화자 대법회를 열어 간화선풍을 크게 진작했으며,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아 간화선풍의 선양과 대중화에 진력했다.



고우 스님은 70세가 돼 경북 봉화 문수산에 작은 암자 금봉암을 창건했다. 기도, 불공이나 천도재는 물론 부처님오신날 연등조차 달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며 법회와 참선 수행만 했다. 평생 참선한 선승임에도 불교의 근본 중도와 선(禪)의 가치를 전하는 데 열성을 다해 노구에도 전법을 위해선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책은 고우 스님을 20년 가까이 모신 재가 수행자 박희승 작가가 한국불교 현대사와 관련지어 담담한 필체로 정리한 것이다.

고우 스님의 탄생부터 군대에서 병을 얻게 된 이야기와 출가, 강원 공부 과정, 현대 선지식들과의 문답과 일화, 수행 체험과 깨달음, 공심으로 일한 봉암사·조계사 소임 살이와 10.27 법난 수습 이야기, 두 번의 깨달음과 성철 스님과의 짧지만 인상적인 법거량 인연, 간화선의 지혜와 대중화에 쏟은 열정 등이 총 4장에 걸쳐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삶이 그대로 수행이었던 선사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겸 사무총장인 박희승 저자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20여 년간 종무원 생활을 하다가 고우 스님을 만났다. 불교인재원에서 생활 선명상 입문-심화-전문-지도사 과정을 6년제로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 '생활 선명상'을 통해 화두 선명상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어린이 마음에 동화로 심는 부처님 마음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
오해균 글, 김승연 그림
운주사 / 1만6천원



동화 형식 통해 부처님 가르침 심어
어린이의 바른 성장 인도하는 동화
15편 순수 창작, 5편 삼국유사 개작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요? 부처님은 길 찾는 사람에게 길이 되어주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고, 세상을 맑고 밝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신간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대원불교문화총서 5권)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시나브로 느끼게 하는 동화책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행복한 길인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한다. 물론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읽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책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사랑', '부처님과 함께', '삼국유사 속 불교동화'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장독대', '부처님은 스마일 운동가' 등 20편의 동화가 실렸다.

이 책의 키워드는 '부처님'과 '동화'이다. 즉 내용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동화라는 재미있는 형식을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어린이가 읽고 듣는 동화는 엄마의 밥상 같아서 우리 어린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꼭 필요한 마음의 영양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어린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마음의 영양제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말한다.

책에 실린 20편의 동화 중 15편은 순수 창작동화이고, 5편은 〈삼국유사〉의 내용을 개작한 것이다. 한 편 한 편 동화를 읽다보면, 어느새 부처님과 친숙해지고, 그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진다.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 느끼게 해준다. 자비, 연민, 공감, 사랑, 기도, 효도, 더하여 재미와 교훈, 상상력까지. 그리고 덤으로, 마치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져 온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이자 목적은 부처님과 친숙해지는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용 불교동화가 부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 책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싹트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주고,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박재완 기자

설잠 선사 김시습의 다선일미, '초암다도'



초암다도의 창시자 설잠선사
최덕중 지음
민속원 / 2만3천원

설잠, 〈금오신화〉 쓴 김시습
용장사 초암다옥서 다도 완성
일본 도시모 지우까이에 전해

"우리는 다도의 선(禪)을 이야기할 때 흔히 조선 말기 추사 김정희 선생과의 교류로 유명한 초의 선사를 떠올리지만 그에 훨씬 앞서 조선 세종과 세조 년간에 살았던 설잠 선사가 다도를 중심으로 다선일미를 처음으로 실천한 선사임을 알게 되었다."

신간 〈초암다도의 창시자 설잠선사〉는 설잠 선사와 그가 창시한 '초암다도'를 소개한다. 설잠 선사는 생육신 중 한 사람이며,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이다. 그는 1457년 23세 때 문경의 설잠산 혜국사에서 혜기 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저자(본명 최덕중, 법호 무창산)는 남장사 주지로 있을 때, 대웅전 천정에서 목함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설잠요감〉이라는 유고집이 들어 있었다. 저자는 그 후 설잠 선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50년 만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

저자에 따르면 설잠 선사는 31세 때 경주 남산에 용장사를 짓고 이후 부속건물인 초암다옥에서 다도 작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를 일본 승려 도시모 지우까이에게 전했으며, 그의 다도작법은 일본 다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책은 설잠 선사의 탄생, 수행과 은둔의 시간을 조명하고, 초암다옥, 다당, 다로, 병표, 다완, 향, 다화, 찻상과 다탁, 달이는 법 등을 소개한다.

박재완 기자

신간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 『화엄경소론찬요』!
혜거 스님의 군더더기 없는 직역으로 만나다!

『화엄경소론찬요』(華嚴經疏論纂要) 17~21권 출간



혜거 편저 | 각 권 30,000원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엄경』의 가르침

『화엄경』은 부처님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계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화엄경소론찬요』에 명쾌하게 펼쳐져 있다.

2016년부터 출간된 『화엄경소론찬요』는
내년 2월 완역(총 26권)될 계획입니다.

편저 혜거 스님 _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평생 공부와 참선을 통해 자기 수행을 강조해온 스님은 경전 번역에 매진하는 한편, 1988년 서울 강남에 금강선원을 개원했다. 현재 금강선원 선원장을 비롯해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등을 맡고 있으며, 2018년 제30회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